

# 못 배운 한(恨) 풀어주는 문해교육에 관심을

전일광장

이기연

광주교육청 연구원  
교육학박사



광주광역시교육청 산하 직속기관인 광주송정도서관, 금호평생교육관을 비롯하여 광주지역 문해(文解)교육 기관들이 3월 개강을 앞두고 초등학력인정 성인교육 학습자를 모집 중이다. 문해교육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추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2006년 교육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을 주요 과제로 선정하였다. 이듬해 12월 평생교육법 내에 문해교육지원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고, 2014년에는 문해교육 영역을 문자해득 능력에서 기초생활능력까지 확대하는 등 교육 소외계층의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2006년부터 시작된 저학력·비문해 성인을 위한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2020년 전국 167개 자치단체와 421개 문해교육기관으로 확대되었고, 7만여 명의 어르신들이 한글교육에서부터 시작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배움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이를 위한 학력 인정 제도 구축뿐만 아니라 성인문해 교과서 개발과 무상 보급, 문해교육 교원연수 및 보수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매년 9월을 '대한민국 문해의 달'로 선포하고 문해교육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2018년 광주광역시평생교육진흥원이 광역문해교육지원센터

로 지정받아 문해교육 학습자들과 시민들의 인식 전환과 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필자가 몸 담았던 광주평생교육진흥원에서 문해교육에 관심을 갖고,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게 된 것은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성과 결정 요인' 박사학위 논문을 쓰기 위해 문해교육기관을 방문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당시 교육소외계층의 평생학습 성과와 관련한 설문조사 대상에 저학력 성인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광주의 문해교육 기관에서 한 어르신을 만났다. 그분은 자신이 어릴 적 학교를 다니지 못하게 된 사연을 얘기하며 눈물을 흘렸다. 자녀들은 전문직 엘리트로 훌륭하게 성장시켰다고 하시면서도, 지금 한글을 배우는 것은 주위에 비밀로 하고 있다고 했다. 자녀들에 흠이 될까봐 걱정하는 모습이었다. 야간에 중학교 과정이 진행되는 야학기관도 찾았다. 초등과정의 학습자 대부분이 여성인데 비해 남성들도 다수였고, 마치 고3 교실과 흡사할 정도의 면학 열기가 느껴졌다. 야학기관 교사는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었다. 성인 학습자들과 쉬는 시간까지 수학 문제로 씨름하던 대학생 선생님들과 성인 학습자들의 모습, 더듬더듬 책을 읽어내려가면서도 웃음이 가득했던 어르신들의 표정은 필자가 박사학위 논문에 더욱 매진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너무 오래돼서 남은 책결상 등 열악한 학습 환경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성인 학습자들의 모습에서 문해교육의 중요성과 지원 확대 필요성을 인식하게 됐다.

문해교육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은 대부분 못 배운 한(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못 배운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필자는 광주평생교육진흥원에서 문해교육 인식 개선을 위해 어르신들이 당당하게 배우면서 성취감과 자존

감을 높일 수 있게 공중파 방송으로 '문해골든벨' 프로그램을 만든 적이 있다. 처음엔 출연하는 것이 부끄럽다며 한사코 손사래치던 어르신들이 이듬해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각종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에 출품한 작품들이 교육부장관상, 시장상, 교육감상 등을 수상하면서 더욱 열심히 공부한다는 후문도 들었다.

배움은 글을 읽고 쓰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한글을 깨우친 후 어르신들은 다른 이의 도움을 빌리지 않고 글을 읽을 수 있어서 자존감이 생기고 즐거워졌다고 말한다. 글을 몰라 어린 자녀의 학업을 도와줄 수 없어 항상 미안했다던 한 어르신은 손자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줄 수 있어 행복하다고 전해왔다. 매일 읽어줄 책을 빌리러 도서관을 다니다 문화강좌도 수강하게 되었다며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은 욕구와 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행복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다고도 했다.

문해능력은 모든 교육의 토대가 되는 인간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능력이자 권리이다. 아직 한글을 읽지 못하는 분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문해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족과 지인 등의 애정과 관심이 필요하다. 문해교육 학습자를 모집하는 기관의 문자 홍보물을 직접 읽을 수 없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주위에서 적극적으로 알리고 학습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 이들을 위한 홍보를 신문, 홈페이지, 현수막 등에 하기보다 음성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면 좋겠다. 해당 기관이 추진하기에 무리가 있다면 광주광역시 문해교육지원센터에서 음성 홍보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것은 어떨까. 새 봄이 오면 책과 공책, 연필이 담긴 책가방을 메고 신나게 등교하실 어르신들을 생각하면 어려운 일도 아닐 듯하다.

## 社說

### 정부 관심과 지원 필요한 신남해안 시대

#### 정부·영호남 지자체 협약

전남과 경남, 부산 등 남해안을 공유한 영·호남 3개 광역자치단체가 해양수산부와 함께 남해안을 세계 최고의 해양레저관광 벨트로 구축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풍부한 해양레저 관광자원을 보유한 남해안을 활용한 관광산업은 남해안권을 수도권과 차별화 할 수 있는 최적의 전략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3개 광역 자치단체의 경쟁력이 더해져 남해안이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하길 기원한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과 김영록 전남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박형준 부산시장이 경남 통영에서 남해안권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 1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남해안 해양레저관광 벨트 조성' 계획을 밝혔고, 전남 등 3개 지자체도 지난해 12월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벨트' 구축을 위한 상생 협력을 약속했다. 치밀하고 세심한 전략으로 이제는 후속 사업을 추진해야 할 때다.

전해의 섬과 갯벌 등으로 이뤄진 남해안은 관광의 보고이면서 미래를 위한 숨겨진 성장동력이다. 특히 전남은 전국의 65%인 2219개의 섬이 산재해 있고, 1054km에 이르는 갯벌 등 해양 자원과 웰빙 수요를 충족하는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인구 100만 명당 해안선도 3179km에 달한다. 이런 비교우위의 자원을 적극 활용한다면 낙후된 남해안의 미래는 밝다. 전남도가 제안한 크루즈 관광과 마리아 항만 기반조성, 섬 갯벌 국가정원 조성 등도 신 개념 관광자원으로 기대를 모은다.

문제는 정부의 의지와 지원이다. 남해안 관광벨트는 단순한 지자체 간 상생을 넘어 전남과 부산, 경남이 만드는 초광역 협력사업이다. 정부는 수도권 쏠림을 막고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 해안도로와 철도 같은 기반시설 확충에 적극 나서야 한다. 보존과 규제의 대상으로만 인식돼 왔던 한려해상국립공원과 다도해국립공원 등에 대한 고감한 제도개혁도 필요하다. 신 남해안 시대를 활짝 열기 위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한다.

### 광주시·의회, 추경서 생산적 관계 회복을

#### 지난 본예산 갈등 봉합 기대

지난해말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첨예한 갈등을 빚은 광주시와 광주시의회가 3월 조기 추가경정 예산 추진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와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양측은 최근 2~3차례 실무 협의를 통해 3월 추경에 상당 부분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의회는 지난해 12월 민선 8기 들어 첫 편성한 광주시 2023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2000억원을 삭감하자 광주시는 시의원들의 지역구 민원성 도로개설 사업 예산(18억여원)(이른바 쪽지 예산)에 대해 불요 불급한 사업이라며 부동의 처리로 맞대응했다. 당시 강기정 광주시장은 "예산 심의권 남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정무창 시의회 의장은 "쪽지 예산 반영없이 원칙을 지켰다"고 맞서 갈등의 골이 깊었다. 이같은 집행부와 의회 간 이례적인 예산 갈등이 양측 모두 조기 추경에 긍정적인 입장이어서 봉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양측의 불협화음으로 인해 현안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고물가·고금리·고

환율 등 '3고'로 인한 시민 고충 완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로 풀이된다. 양측의 소모적인 대립과 갈등 관계가 지속되는 것은 시장 차질과 시민의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이번 추경을 통해 생산적 관계를 회복하기를 기대한다. 그 동안 새 단체장 취임 6개월까지는 허니문 기간(밀월 관계, 비판 유보 등)이 유지된 게 관행이었다. 단체장과 같은 당 소속 의원이 절대 다수인 의회 관계에서 이런 관행이 깨졌으니 안타까움과 불만이 클 수도 있었을 테지만 한편으로는 이번 파동이 예산 편성과 심의과정에서 관행으로 굳어왔던 것들을 변화시키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심의가 이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소통과 협치는 필요하나 집행부와 의회 고유의 역할을 저버리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 집행부는 시민들이 공감할만한 내용의 추경을 편성하고 의회는 한 톨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현미경 검증을 해야 한다. 혹여 이번 추경에서 의원들의 쪽지 예산과 단체장 선심성 공약 예산을 맞바꾸기를 했다가는 시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호남 최고 정론지  
전남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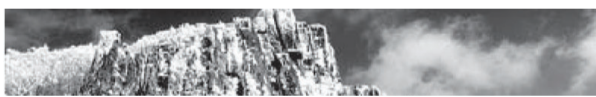
PC와 모바일에서 만나 보세요

www.jnilbo.com  
m.jnilbo.com  
facebook.com/jnilbo  
구독문의 (062) 510-0471  
광고문의 (062) 512-0100

#### 서석대

"병풍처럼 펼쳐진 소나무 숲을 배경으로 눈 덮인 설원을 뛰어가는 노루 가족의 모습이 하나의 수목화를 연상시키는 것 같다." 지난 2020년 제주도가 개최한 제12회 제주국제사진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설원에 노루 나들이'라는 작품에 대한 심사평이다. 실제 사진은 눈 내리는 제주의 설원을 배경으로 4마리의 노루가 뛰어가는 모습이 평화롭게 담겨 심사위원의 호평을 받았다. 한 장의 사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인 작가의 성실함에 대한 찬사도 이어졌다. 하지만 이 사진은 심의 결과 합성으로 밝혀졌고 수상이 취소됐다. 기술이 만들어낸 디지털 범죄, 이른바 딥 페이크의 대표적인 사례다.

딥 페이크는 AI를 기반으로 특정한 사진을 실제처럼 조작한 영상을 통칭한다. 기존에 있던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한 부위를 영화의 컴퓨터 그래픽처럼 합성하거나 기존에 없던 사진을 진짜처럼 만드는 가짜 영상이다. 최근에는 페이스북이나 구글 등 자본과 인력을 갖춘 빅테크 기업이 단순한 사진을 동영상으로 만드는 AI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한층 정교한 영상도 제작이 가능해졌다. 소스코드도 공개됐다. 그야말로 가짜와 진짜가 뒤범벅된 세상, 어느 것도 믿어선 안되는 세상이다.



#### 딥 페이크

딥 페이크는 비용 절감과 다양한 연출이 가능해 마케팅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반대로 개인의 동의 없이 사용되는 딥 페이크는 유명인의 브랜드나 평판이 조작될 가능성이 높아 위험하다. 부정적이거나 비도덕적 영상이 무차별 퍼져나갈 경우 법적·윤리적 문제도 발생한다. 누군가 특정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거나 리벤지 포르노처럼 온라인에 공유하는 것도 이미지를 기반으로 하는 중대한 성폭력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여성 아티스트들의 얼굴 사진과 음란물을 합성한 가짜 영상이 급속히 번지면서 사회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광고계에 일론 머스크와 할리우드 배우 톰 크루즈 등 유명인을 디지털로 합성한 딥 페이크 영상 광고가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딥 페이크는 진실과 허구, 객관과 주관, 실체와 가상(이미지)의 경계를 넘나드는 디지털 시대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다. 기존의 아날로그 세상을 넘어서는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다. 하지만 악용될 경우 범죄를 넘어 개인의 존엄과 인간성을 위협하는 흉기일 뿐이다.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하는 것을 넘어 가짜가 진짜를 비난하는 세상, 딥 페이크가 만들어 갈 미래가 두렵다.

이용환논설위원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기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 보도 실천 지역 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기사제보 (062)510-0331	경영지원팀 (062)510-042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정치부 (062)510-0461 사회부 (062)510-0340 경제부 (062)510-0380	문화체육부 (062)510-0394 전남취재부 (062)510-0336 뉴스콘텐츠부 (062)510-0321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원 1부 5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FAX (062)510-0436	광고문의 (062)512-0100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